

■ 의과대학생의 미래와 진로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양 은 배

국문초록

의사에게 있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 의과대학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글은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단계별 진로지도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공선택 지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평가이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전공탐색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공 선택 단계이다. 이 과정은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및 전공에 대한 탐색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전공 선택을 위한 접근 방법의 마지막은 전공 영역의 수련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전공 선택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영역, 그리고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과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의 수급,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은 대학의 책무성 수행차원에서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진로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핵심단어: 전공선택, 진로지도, 적성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대학의 전공을 결정한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어려운 의과대학 입학경쟁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김경환 등(1999)은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다시 고등학

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의과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50.3%의 학생만이 진학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지금 전과가 가능할 경우 전과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28.1%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진로나 전공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6.0%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건,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건 의과대학에 들어와 공부해 보니 입학 전에 의학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느끼고, 그 결과 어떤 학생들은 의과대학에 들어온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다른 직업세계와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직업군 속에는 더 많은 세부 속성들을 가진 직업군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어떤 의사, 즉 외과의사, 내과의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부른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이론적인 논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삶이 더욱 만족스럽고 일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의사에게 있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 의과대학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L.J Fernandez 등(1997)은 의과대학 졸업 후 세부전공을 선택할 때 세부전공 수련과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 특성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향후 자신의 의사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은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및 소아과 등을 선호하고, 사람보다는 기계나 기구 만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병리, 방사선과, 안과 등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Yuft et.al, 1969). Rogers (1996)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하는 데는 의과대학 성적, 연령, 성별, 경제적 이유, 군복무 여부, 결혼 여부, 가족의 권유 등의 의식적 동기와 무의식적 동기, 자신의 성격 특성 등 많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임기영과 조선미(2002)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세부전공 선택 요인이 다양하므로 의과대학생의 적응을 돕고 제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의과대학협의회(2004)는 의과대학 학생의 진로계획과 세부전공 선택 시에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성을 지적하였다.

어떤 동기로 의학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의 선택이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 후의 전공 선택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짊어져야 하므로, 더욱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나 자신이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적성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전공을 선택해야 할 지 전공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선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전공을 선택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진

로지지도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단계별 진로지도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¹⁾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신화

의과대학 학생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는 언제나 세 개쯤 있다. 첫째는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 둘째는 사귀는 이성 친구들과의 문제, 그리고 셋째는 전공 선택의 문제이다. 이 중에서 학교 성적 및 공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이나 타협안이 나오기 마련이었고, 둘째, 이성 친구와의 문제는 상황이 정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그 친구와 헤어지거나 최종 결정을 몇 년 뒤로 미루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공 선택에 관한 문제만은 저절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이다.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예과 기간과 본과 1, 2 학년 기간에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있다가, 본과 3, 4 학년 때는 임상 실습을 돌면서 고민은 좀 하는 것 같으나, 체계적인 생각 속에서의 고민이 아니어서 별 소득 없이 시간을 보내고, 결국 인턴 때 급하게 우왕좌왕 하다가 전공을 선택하고 뿔뿔이 흩어지곤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대생들이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하여 고민하며 이야기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해 7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이 원고는 필자가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예비의사를 위한 전공선택 가이드 북]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다.

1. 첫 번째 오해 :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일생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는 두려움과 착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와 의료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가 선택한 전공에 따라 그들의 수입과 삶의 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 물론 개원의 용이성, 일시적 수입, 전공의 시절의 잠 잘 수 있는 시간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전공의 전문의가 된 이후의 삶을 보면, 의과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공을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2. 두 번째 오해 : “지금 잘나가는 전공을 택해야만 한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적 환경에 따라 좀 더 인기가 있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전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정도를 주기로 뚜렷한 변화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산부인과, 외과가 최고인 시절이 있었고, 그 후에는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 그러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그런 전공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떨까? 아니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고 의사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20년, 30년 뒤에는 어떨까? 그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일까? 물론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좋지 않은 전공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전공들 역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의술을 베풀 수 있는 훌륭한 전공들이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지금의 인기를 따라 그런 전공들을 택한다면, 그들은 향후 많은 측면에서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 세 번째 오해 : “모교에서 수련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 자신의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공을 택해야한다”

한 명의 의사가 평생 의사로서 일을 하는 시간이 평균 125,000 시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해야 하는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정말로 매력을 느끼며 흥미 있게 일할 수 있는 전공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다. 일단 전문의가 되고 나면 그가 어느 병원에서 수련받아 전문의가 되었는지는 전혀 밝힐 일이 없어진다. 다만 그가 어느 전공 전문의인가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우선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적에 밀려 이 전공 저 전공으로 희망전공을 전전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물론 자기 출신 대학, 또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것은 향후 대학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도 간주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자신의

재능과 맞는 그런 전공을 택하였는가이다. 그것이 그의 삶의 질을 더 확실히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네 번째 오해 : “그래도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가 되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쏟아져 나오는 의대 졸업생만도 3000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각 전공별로 개업할 자리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선배들의 모습을 쉽게 본다. 한 나라에서 가장 분명한 의사들의 수요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기준은 WHO나 OECD의 의사 일인당 국민들의 숫자가 아니다. 그 기준은 대도시 종합병원 봉직의의 월급 상황이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의사 과잉 국가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데 있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임상 의사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오히려 의사라는 전문가들이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활동하여야 하는 소위 “블루 오션”은 임상 의료 자체보다도, 대중이나 타 학문과 의료나 의학을 연결해 주는 중간 다리 분야이다. 그것은 의료와 법, 의료와 경영, 의료와 언론, 의료와 정치, 의료와 메스 미디어, 의료와 문화, 의료와 정책, 의료와 교육, 전문 NGO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과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분 차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의사들은 신분 우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영역은 이미 열리는 있으나, 아직 많은 의료 인력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모든 의대 졸업

생들이 이 분야에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는 임상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영역에서 다른 의사들이나 의대생들보다 뚜렷한 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임상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고정 관념에 묶여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5. 다섯 번째 오해 : “의대교수가 되는 것이 최고다”

물론 의사 중에서도 의대교수가 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연구 활동과 후학들을 양성해 내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교수 직은 물론 의미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가 반드시 선풍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직이란 연구와 교육을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그에 필요로 되는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나 또는 학교나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 된다. 즉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 후배 의학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열정과 관심 및 능력,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에 덜 연연해 할 수 있는 태도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교수직은 스스로에게 만족한 자리가 된다. 때로 교수직보다는 개업의, 또는 대규모 병원의 경영인, 또는 교수직 이외의 다른 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것이고, 그에게도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의대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전공보다도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데, 그러한 것은 매우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여섯 번째 오해 :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원하는 전공을 나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전공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것이 가장 답답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용감하게 선택하고 노력할 텐데, 아무래도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에게 정말 잘 맞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런 노력 없이는 결코 분명히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공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정리하여, 관련 책자나 논문도 읽고,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상담도 하고, 직접 실험실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실험도 해보고, 보건복지부나 WHO, 또는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사원으로 활동도 해보고 하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노력 없이 막연한 걱정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7. 일곱 번째 오해 : “전공 선택은 현실의 문제이고 가치관 등등은 이상의 문제이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과입니다. 그러나 그 전공을 하면 앞으로 돈을 못 번다고 주변 사

람들과 가족들이 말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지만 전공 선택은 '현실'의 문제이니까, 현실적으로 전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다. '이상'은 '이상'일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가치관이 그의 삶을 규정하고, 모든 선택을 하게 한다. 그가 선택하는 전공, 전문의가 된 다음의 세부 전공, 그가 그 곳에서 만들어내는 업적, 성취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결혼 배우자의 선택과 가정생활까지, 가치관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가장 큰 오해이다. 그러기에 진로 선택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그 가치관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이 정립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면, 늦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정면으로 부딪치며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진로 선택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것이다. 많은 경우 학생들은 이것을 가장 마지막 단추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공 선택은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전공 선택을 위한 단계별 접근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이미 몇 권의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용일(1999)의 '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설계' 유승흠 외(2003)의 '의학의 갈래와 선택'

과 '의학자 114인이 내다보는 의학의 미래(상·중·하)' 등은 대표적인 진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의과대학생들이 실제로 전공 선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배경에서는 필자는 의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의 전망과 구체적인 전공들을 고민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진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예비의를 위한 전공 선택 가이드북'을 기획하였다. 다음은 동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의사의 전공 선택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1. 제1단계: 자기평가

자기평가(self assessment)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기본적으로 자기평가는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비록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 가치체계, 능력, 개인적 특성 및 스스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의과대학 졸업후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전공 선택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자기평가는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 과거력(history taking) 검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제 학생 스스로에 대한 과거력 검사를 실시해 보자.

1) 자기평가 영역: 무엇을 평가 하는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내어 자기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나의 무엇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자기평가는 개인적 흥미, 가치, 성격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의사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알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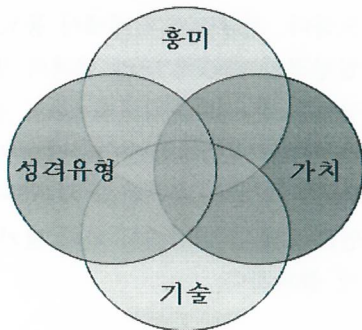


그림. 자기평가 영역

- **흥미(interests)** : 흥미는 어떤 사물이나 일에 마음이 끌리어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의미한다. 당신이 가장 즐겨하거나 흥미 있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쁜 의과대학 생활 가운데에서도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다면 주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주로 흥미를 갖고 있는 영역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당신의 흥미가 무엇인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학생들은 아무 생각없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엇에 대한 공부인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가치(values)** : 가치란 인간 정신의 목표가

되는 보편타당의 당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는 개개인의 삶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리이며, 여러분의 활동, 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준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신념은 무엇인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라. 여러분들은 오늘날 의사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의사 개개인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얼마나 격리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타당한 가치체계를 정립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성격 유형(personality type)** : 성격 유형은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상호 작용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당신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중요한 사안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아마도 당신이 환자, 동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의사소통 하는지는 앞으로 선택하게 될 세부전공 영역에서 당신의 역할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기술(skills)** : 기술은 어떤 일에 대한 솜씨, 노련함, 익숙함 등을 의미한다. 만약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 외에 당신만의 유일하게 가진 기술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당신이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2) 자기평가 도구: 어떻게 평가 하는가

학생들은 자기평가를 통해 개개인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은 다양한 세부전공 분야 중에서 자신과 가장 부합하는 전공을 탐색하는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평가를 위한 도구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다. 비록 의학 또는 의료에 특성화된 도구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도구들은 현재의 당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3) 자기평가 시기: 언제부터 평가 하는가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 선택을 위한 자기평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졸업 후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관련 경험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1학년 2학기부터는 자기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2. 제2단계: 전공탐색

두 번째는 전공탐색(career exploration)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기평가 결과들이 세부전공 영역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전공탐색의 목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신의 적성 및 능력과 일치하는 전공의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최신의 정보가 요구된다. 수십 개에 달하는 세부 전공 영역을 그 전공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

다. 당신이 의과대학 졸업 후 세부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하는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전공 영역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미 어떤 세부전공 영역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당신이 그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라. 당신은 이러한 정보를 다른 전공들과 구분하여 자기평가 결과와 비교한다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전공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탐색 단계에서 동료나 선배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탐색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공탐색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입견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하라. 그들의 조언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미 평가 내린 결과에 불과하다.

1) 전공탐색 영역: 무엇을 탐색 하는가

의과대학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전공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임상의학, 기초의학, 인문사회 및 보건행정 분야 등 다양한 탐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전공분야를 탐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공의 본질에 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범주에는 해당 전공이 다루는 질병, 환자유형, 환자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절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환자진료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해당 전공영역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고민하는 삶의 질의 문제는 무엇인지가 탐색되어야 한다. 둘째는 의사의 특성에 대한 정보이다. 이 전공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어

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흥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탐색되어야 한다. 셋째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수련 정보이다. 해당 전공의 수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전공 영역에서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세부 전공 이후의 펠로우십(fellowship) 또는 세부 전공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넷째는 급여 수준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다. 기대되는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중·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의사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대는 어떤지 탐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당 전공분야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가 나에게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전공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정보는 없는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관여되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전공탐색 정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의과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의과대학 재학 시의 임상실습 기간 동안 습득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인터넷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전공탐색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의과대학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에 대한 소개와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각 전공별 참고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보자. 아마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탐색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전공분야에서 자신들의 분야를 조금은 미화하여 소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현실적인 정보들이다. 현실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전공분야 개업의를 인터뷰 해 보아라. 전공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개원의를 만나거나,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preceptor)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실제 개원의나 프리셉터를 만날 경우 다음 질문을 던져 보자. ① 당신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가, ② 이 전공에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인가, ③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④ 당신의 직업과 당신 개인의 삶의 균형은 어느 정도인가, ⑤ 이 전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인가, ⑥ 당신이 다시 전공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이 전공을 선택하겠는가, 같은 전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면 왜 아닌가.

전공탐색은 여러 전공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일단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해야 한다. 다양한 전공탐색 결과를 종합하여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전공영역에서 당신이 평상시에 고려하고 있었던 전공은 무엇인가, 어떤 전공이 가장 당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가, 자기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는 전공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 이러한 질문과정에서 현실적인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료나 선배의 의견에 의존하기 보다는 수집된 정보와 자기평가 결과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3-5개로 자신이 구체적인 탐색을 할 전공 영역을 결정하라. 그러나 범위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전공탐색 시기: 언제부터 탐색 하는가

전공탐색 이전에 성실한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공탐색이 폭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자기평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전공탐색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역에서 전공탐색을 시작할 경우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알고 있다면 전공탐색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공탐색의 결과는 임상실습의 선택이나 의과대학 졸업 후 해당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기평가가 끝났다면 곧 바로 전공탐색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전공탐색은 충분한 전공탐색 기간의 확보와 3학년에서의 임상실습을 고려하여 2학년 초부터는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3단계: 전공 선택

세 번째는 전공 선택(career selection) 단계이다. 이 과정에는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및 전공에 대한 탐색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의사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개인적 관심이 있는 세부 전공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기평가 결과와 전공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집하고 평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엄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최신 정보들을 수집하고도 분석과 해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기평가를 통해 알게 된 스스로의 모습과 당신이 조사한 전공탐색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라. 어떤 전공특성들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 능력, 흥미 및 상호작용 유형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라. 또한, 당신이 의사로서 미래에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1) 전공 선택 방법: 어떻게 전공 선택을 하는가

전공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당신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시켜준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탐색한 전공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차원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자. 당신이 만든 매트릭스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이미 당신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의사결정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용한 전략들은 지금도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트릭스 한 쪽에 자기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전공 선택을 위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다면,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친구, 선배 및 가족들과 당신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아니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최상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에 근거해서 내려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절대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일단 자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할 영역 군을 결정했다면, 실제 어떤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것인지 전공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2) 전공의 수련과정 탐색: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세부전공 영역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학습하기 위해 어디에서 제공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약 270 여개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병원 및 기관이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영역과 관계없이 자신이 졸업한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졸업한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의사로서 평생 동안 활동하게 될 전공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영역이 결정되었다면, 각 수련기관이 제공하는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에 대한 세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이 일정 수준 표준화되어 있지만 당신이 가장 만족할 만한 환경적 요인과 미래의 당신의 모습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한

다. 실제로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의 질적인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인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① 교육과정 질: 선발인원, 신입상태, 중도 탈락률, 졸업 후 진로, ② 교육구조: 회전 일정, 공식 교육과정, 비공식적 학습기회, 교육 및 연구 기회, ③ 의무: 콜 일정, 지도·감독 구조, ④ 평가: 평가방법, 평가시기, ⑤ 기타: 위치, 주거, 생활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3) 전공 선택 시기: 언제부터 전공을 선택 하는가

바람직한 전공 선택 시기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 후 자신이 희망하는 몇 개의 전공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3학년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전공 선택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몇 개의 전공영역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따라서 3학년 과정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면 4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임상실습 과정이나 특성화 과정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영역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

4. 제4단계: 전공 선택 결정의 이행

전공 선택을 위한 접근 방법의 마지막은 전공 영역의 수련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전공 선택을 이행(implementation)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영역, 그리고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수련을 받기 위한 이행단계는 인턴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전공영역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과 부합하는지 인턴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에서 도움이 될 몇 가지 지침을 알아보기로 하자.

- (1) 당신의 구체적인 이력서를 작성하라. 일반적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과정에서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력서를 잘 만들어 두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다른 서류작성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라.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당신이 지원하는 수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는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필기시험 성적 40%이상, 면접 15%이하, 인턴수련 성적 20%이상(인턴 선발 시에는 의과대학 성적) 및 선택평가 25% 이하를 수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련병원의 선택평가 기준으로는 토익·토플 점수, 전산관련 자격증, 선진외국 의사 시험 자격증, 의학 관련분야 학위 등 객관적이고 공인된 자격증이나 성적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선택평가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 매진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3) 철저하게 인터뷰를 준비하라. 성공적인 인터뷰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연습에 의해 좌우된다. 자신이 지원하는 수련기관 및 전공영역에 대해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해당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상호 작용하는 것이 좋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더하여 수련기관의 목표, 전공영역의 최근 쟁점 등을 파악해 두는 것도 유용하다. 사실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예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당신은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② 의과대학에서의 경험이 이 전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③ 이 전공에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④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당신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자신이 결정한 전공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는 늦어도 인턴과정이

시험 5%) △가톨릭중앙의료원(구두시험 10%, 의대성적 5%(내신 5등급으로 환산)) △경북대병원(실기시험 10%, 토익/토플성적 5%, 의대성적 5%) △고려대부속병원(의대성적 5%, 실기시험 10%, 토익/토플 5%) △포천중문의대차병원(의대성적 10%, 과별 구두시험 10% 및 토익/토플, USMLE, 전산정보관련 자격증 5%) [인턴 전형] △서울대병원(영어시험(TEPS, TOEIC, TOEFL) 10%, 실기시험 10%, 기타 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전산 5%) △가톨릭중앙의료원(구두시험, 의료봉사활동)

2) 2005년도 인턴 및 전공의 수련병원의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의 전형] △서울대병원(실기시험 15%와 의대성적 5%) △서울아산병원(의대성적 22%, CPR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자체 전산

시작되면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비록 인턴 수련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제로 자신이 결정한 전공영역에 응시하게 되지만, 자신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인턴과정이 얼마나 바쁜 기간인지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선택을 계획하는 일은 쉬운 것도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은 의사로서 당신의 삶이 만족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자신의 전공 선택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도록 하자. 첫째, 어떤 세부 전공이 당신과 가장 잘 맞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세부 전공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노력들을 결코 혼자 할 필요는 없다. 멘토(mentor), 교수,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피드백을 받는 작업들은 당신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넷째, 당신이 미래의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몫이다. 그리고 전공 선택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당신의 성공적인 진로개발은 직업의 계획뿐만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 선택을 위한 학년별 과제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계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특정 전공

을 선택해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여 전공 선택을 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다. 어떤 전공이 나에게 적합할까?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나? 임상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전공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찾을까? 등의 진로 결정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진로 계획은 의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가능하면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으며,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고민할 때, 학년별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예과

의학에 처음 입문하면서, 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특징을 파악한다. 의학입문, 의학의 이해 등의 개론적인 교과목들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습득해야 할 기초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학생 상담소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적성검사나 흥미검사, 인성검사 등을 받고, 각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 미래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활동을 한다. 의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강의도 수강해야 하며, 병원에서 자원 봉사하는 경험을 통하여, 의사, 환자,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이 시기에 필요한 활동이다.

1. 의학의 전공 선택에 관련된 저널을 읽기 시작한다.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정보와 임상 의학 전공들에 대한 인상, 그리고 더 알고 지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둔다.

○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정보 _____

○ 임상의학전공에 대한 인상 _____

○ 더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 _____

2. 의사,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학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의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화한다.

○ 이름 _____

○ 날짜 _____

○ 의견 _____

3.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일하는 경험을 가진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해 보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한다.

○ 경험 _____

본과 1학년

기초의학에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학을 접하는 시기이다.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자신의 특성과 관심에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자신이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경우, 방학동안 수강했던 기초학 교수의 연구실에서 실험 연구를 돕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주요 교과목의 성적관리를 잘 하도록 한다. 가장 경쟁적인 전공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성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 본과에 진입하면서부터, 의학 전공 선택과 관련되는 저널들을 읽기 시작한다. 수업 중에 흥미 있었던 내용들을 적어두고, 수업에서 접했던 의사들에 대한 인상도 적어둔다. 좀 더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둔다. ○ 흥미가 있는 의학의 영역 _____ ○ 향후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_____
2. 의사들이 진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방학동안 고향에 있는 병원을 견학해도 좋고, 주말에 임상 의사들의 회진이나, 지역 순회 진료 등을 견학해 보는 것도 좋다. ○ 관찰한 곳 _____ ○ 날짜 _____ ○ 느낀점 _____
3.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진료 활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는 등 진료에 관련된 수업 외 활동(의료를 통한 단기 선교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 참여한 활동과 날짜 _____

본과 2학년

자신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발견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하고,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본격적인 임상의학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다. 다양한 임상 전공에 대한 탐색과 함께, 보다 거시

적인 시각으로 외부병원 및 보건관련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의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사고의 폭을 넓힌다. 계속해서 성적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자를 적어도 2명 정도 확보하여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전공 영역에 대한 탐색을 계속한다.

○ 조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_____

○ 조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_____

2. 의과대학의 임상교수, 전공의, 2,3,4학년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전공에 대한 흥미를 질문한다.

○ 조언자 이름과 전화번호 _____

○ 조언자 이름과 전화번호 _____

3. 주요 교실의 임상실습에 대해 교수에게 문의한다.

○ 문의했던 교수 _____

○ 실습 전에 준비해야 할 것 _____

4. 전공선택에 관련한 책을 적어도 한 권 이상 읽는다.

○ 책이름 _____

5.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이 있는 진로 선택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한다.

본과 3학년

임상실습이 시행되는 시기이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수집했어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임상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신이 희망하

는 전공과목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 전공에 대해 판단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관심이 있는 전공의 실습을 꼭 하도록 하며 실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4학년 학생들, 전공의, 교수들을 만나 전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전공탐색에 매우 도움이 된다.

1. 필수실습을 시작하면서, 실습을 한 후 다른 실습을 하면서 이전 실습에 대해 적어두었던 기록들을 읽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실습에 대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상기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를 기억해본다.

○ 가장 좋았던 실습

○ 좋은 이유

2. 학생의 관심에 따라 추천할만한 선택 실습에 대해 교수에게 문의한다.

○ 추천하는 선택실습

○ 추천한 사람

○ 추천한 이유

3. 만약 가장 만족스러운 실습을 했던 전공이 있다면, 전공의 지원 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실습에서 뛰어난 수행을 한 것에 대해 실습을 담당했던 전공의에게 편지를 써 줄 것을 요청한다. 좀 이른 시도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실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하는데 편지가 도움이 된다.

○ 편지 요청한 전공

○ 날짜

○ 편지를 써준 사람

본과 4학년

이제까지 수집된 자료와 전공탐색 자료를 근거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의 실습을 아직 해 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한다. 지원할 전공에 관련된 책들을 가능한대로 많이 읽어서, 자신이 관심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점검한다. 4학년이나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 전공의 특성과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진로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심이 있는 전공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련 직종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1. 가장 관심 있는 전공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구체적인 전공의 수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 전공

○ 수련내용

2. 4학년 학생들, 전공의, 임상 교수들과 전공 선택에 대해 계속 대화한다.

○ 이름

○ 날짜

○ 전공

인턴

자신의 전공 선택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전공 설명회에 참석하여 선택한 전공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점

검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엔 몇 개 전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선택하려는 전공의 전공의와 교수를 만나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전공 지원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

1. 선택하려는 전공의 학과장 교수님이나 수석 전공의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전공의 지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문의한다.

○ 전공

○ 학과장 교수님 이름

○ 준비해야 할 것들

○ 전공

○ 학과장 교수님 이름

○ 준비해야 할 것들

나가는 말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래 의과대학은 우수한 임상 의사, 의학자 및 의학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학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이면에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과 그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다. 아니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시장경제 논리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남겨두었던 영역이라 해야 더 옳은 표현일지 모르겠다. 다원화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그들만의 문제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큰 이슈이다. 그것은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의 수급,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미래 사회의 의료공동체의 일원이 될 의사 개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의과대학들이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의과대학생의 미래와 진로지도를 위해 고려할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며 이 글을 마치기로 하자.

첫째,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의과대학들이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비판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미래의 의료공동체 구성원이 될 예비의사들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남겨놓는 것은 의료공동체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의과대학은 대학의 책무성 수행차원에서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문제는 의과대학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미래 사회는 다원화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생들이 다원화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가치관 위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의과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진로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예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교하지 않거나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의과대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이 전공 선택과 관련한 대학의 지원을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대학 및 의료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수련기관 등 의료계 전체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전공 선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네트

워크 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환, 김명석, 박상철, 박정환, 박형우, 임인경, 전보권, 정상우, 정현택, 채종일 (1999). 의과대학생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보고서. 대한의학회
- 김용일(1999). 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설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승흠 외(2003). 의학의 갈래와 선택. 한국 의학원.
- 유승흠 외(2003). 의학자 114인이 내다보는 의학의 미래(상·중·하). 한국의학원.
- 임기영, 조선미(2002).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 의학교육, 14(2), 269-286
- 정선주, 서동혁, 김용일(2001).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모델의 개발. 한국 의학교육 제 13권 제2호 315-309.
- 정한용, 김동욱(2000). 전공계열의 분류에 따른 전공의들의 자기방어기제. 한국의학 교육 12(1), 71-80
- Alison M Ward, Max Kamien, Derrick G Lopez(2004). Medical career choice and practice location: early factors predicting course completion, career choice and practice location. Medical Education Vol 38, Issue 3, 239-248.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2004). Student Guide: Setting a course for career success. Washington, DC: AAMC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2005). Advisor Manual: Setting a course for career success. Washington, DC: AAMC
- Fernandez Llamazares J, Julio JF, Hidalgo Garcia F, Moreno P. (1997). Survey of residents on satisfaction after obtaining a hospital pcomments. Med Clin(Barc), Nov 109(16), 61.
- Martini CJM, Veloski JJ, Barzansky B(1994). Medical school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choosing a generalist career. JAMA.
- Rogers CS(1996). How to get into the right medical school. Illinois: VGM Career Horizons.
- Schwartz MD, Linzer M, Babbott D, Divine GW, Broadhead E.(1991). Medical student interest in internal medicine: initial report of the Society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interest group survey on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in internal medicine. Ann Intern Med.
- Taylor, A. D.(2003). How to choose a medical specialty, 4th edition. Philadelphia, PA: W. B. Saunders company.
- Yuft RI, Pollock GH, Wasserman E. (1969). Medical Specialty choice and personality. Arch Psych, 20, 89-99.